

선한 사람들의 나라, 미얀마.

정치외교학과

201521991

심현정

1,

미얀마라는 나라는 휴양지로 좋은 곳은 아니다. 특히 불교신자가 아닌 나에게 미얀마는 가까운 나라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계 국제학부 문화체험에 신청했던 이유는 이번이 아니면 평생 한번도 가지 않을, 다신 기회가 없을 나라였고 마침 한국정치외교론 시간의 북방외교 부분에서 언급된 아웅산 테러 이후 북한과 단호하게 수교를 중단한 미얀마의 자신감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얀마가 아웅산 테러가 아니었다면 한국에게 어떤 나라로 기억되었을까? 아마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같이 동남아 국가이고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는 못하는, 그래서 여행가기엔 적합하지 않은 나라 정도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불교신자라면 불교의 성지 중 하나인 쉐다곤 파고다가 있는 곳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다. 테러 당시 남북한의 GDP격차는 작았고 남한이 앞 지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다. 특히 미얀마는 버마식 사회주의를 채택한 나라였기 때문에 북한과 사회주의 연맹이라는 끈끈한 뭔가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 테러가 일어난 아웅산국립묘지는 국가 영웅 아웅산을 추모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상징적인 장소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남한 정부 인사들이었다는 점도 북한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받아내는 정도로 마무리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과감히 단교를 선언할 수 있는 미얀마의 정체성과 자신감은 무엇일까?

나는 미얀마로 출발하며 몇가지 다짐을 했다. 첫째, 미얀마는 관광지가 아니다. 여행객들의 편의보다 현지인의 생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곳일 테니 불편을 감수하자. 둘째, 미얀마의 음식을 빠짐 없이 먹어보자. 식문화는 국가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셋째, 미얀마는 어떤 나라인가에 관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체험을 하자. 넷째,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또는 스스로 회상하기 위해 멋진 사진을 여러장 찍자. 나는 이런 4가지 다짐을 스스로에게 하고 미얀마 공항에 도착했다.

2.

내가 본 첫 미얀마의 모습은 밤 10시 미얀마 공항의 모습이었다. 미얀마의 옛 수도인 양곤에 건설된 국제공항은 미얀마의 해외 여행객들을 거의 모두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인천

공항처럼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작았고 작았다. 공항 직원들도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입국 사진을 찍을 때도 수줍게 picture하며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였다. 그래서 나는 미얀마에 도착하여 처음 찍는 사진이니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민망함이 섞여서 이상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공항 밖으로 나가기 위한 검색대에서도 어떤 직원들은 우리는 모르는 미얀마어로 크게 웃길래 왜 웃나 싶었는데 우리가 짐을 올려놓자 기다렸다는 듯이 '안녕하세요'라고 했다. 인사를 하려고 그렇게 즐거웠나 보다. 낮선 땅에서 낯선 사람이 익숙한 '안녕하세요'를 하니 까 안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미얀마 여행을 시작했다. 도착한 시간이 밤이어서 그런지 한국 오후보다 아주 습하지만 못 견딜 정도로 덥진 않았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가이드님의 미얀마에 대한 개괄을 들으며 도착한 호텔은 생각 이상으로 너무 좋았다. 나는 여행을 많이 해본 편도 아니고 해외도 여태껏 가까운 일본 한번 수학여행으로 다녀왔다. 벨보이라던가 상들이에가 달린 로비 같은 것을 보며 왠지 사치스러운 기분도 들었다. 룸메이트이자 같은 과 동기인 하은이와 미얀마는 너무 습한 것 같다, 그런데 호텔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미얀마 맥주와 함께 하면서 첫날 밤을 마무리 했다.

미얀마는 한국과 시차가 2시간 30분 정도 있다. 한국이 빠르고 미얀마가 느리다. 기상시간이 7시었는데 한국시간으로 하면 9시라 늦잠을 자는 기분으로 편하게 자고 집합시간 9시가 될 때까지 호텔 조식도 먹고 기대도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조식은 늦게 가서 그런지 먹을 것은 별로 없었지만 호텔 서비스를 느끼며 '호텔은 정말 좋고 친절한 곳'이라고 감동했다. 앉으려 하면 여기 앉으실 거냐고 의자를 빼주고 들어올 때, 나갈 때 인사해주고 커피나 차를 마실거냐고 10분 동안 5번은 물어본 것 같다. 오전은 공식일정, 세미나 등을 듣고 오후는 주변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일정이었다. 미얀마 대사관은 첫 공식일정이었다. 국제법상 한국 땅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미얀마 안에 고향의 땅이라니 잠시 진짜 한국에 온 것 같았다. 곳곳에 금수강산 사진이라던가 한국의 북 같은 것이 놓여있어 확실히 친근했다. '밝은 미래의 나라'라는 주제로 미얀마가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에게는 어떤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강연을 들었다.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이고 천연자원과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이다. 영토도 한반도의 3.2배나 되고 중국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략적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나라임에도 한국 기업들은 미얀마에 진출하지 않고 있는데 먼저 미얀마는 사회주의를 채택했던 국가로서 외국인 자본에 대해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 명의의 토지 소유가 불가능하고 관련 법들이 완전히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나라이다. 또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어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 민족, 문화적 유사성으로 교류를 시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이다. 미얀마의 가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점심을 먹으러 가기 전에 간단히 미얀마 마트에 가서 간식거리를 사기로 했다. 미얀마의 경제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처해있고 높은 물가를 평균임금이 따라잡지 못한다. 통화체제도 상당히 폐쇄적인 편이었다. 여행객은 달러를 가져가서 환전소에서 다시 미얀마 쁘으로 환전해야 한다. 2번 환전해야 하는 셈이다.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여러 나라들이 어떤 방식으로 환

전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미얀마는 달러를 받을 때도 상당히 까다로웠다. 환전소 직원들은 아주 작은 달러의 손상도 용납하지 않아서 미얀마의 물가에 놀라고, 그에 비해 너무 적은 돈을 가져온 나에게 또 놀란 마음을 철렁거리게 했다. 실제로 40달러를 환전하려고 했지만 30달러 밖에 받지 않아서 여행 내내 아껴 쓰고 또 아껴 써야 했다. 미얀마 1000짚은 한 국돈 1000원과 유사하다. 조금 다른 것은 500짚, 100짚까지 지폐로 되어있어 1000짚은 10000원같고 100짚은 1000원 같은 느낌이었다. 마트는 일반 한국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느낀 것은 현지인이 살 수 있는 물품이 이원화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미얀마의 물가는 절대 다른 동남아국가에 비해서가 아니더라도 저렴한 편이 아니다. 수입과자 같은 것은 정말이지 미얀마 국민의 대다수는 사지 못할 것 같았다. 평균 월급이 20만원 정도인데 과자 값이 하나에 2000원정도이면 대단한 사치품의 가격과 같기 때문이다. 한국 라면도 간간히 찾아볼 수 있었는데 나는 현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매일 밤 라면을 먹어야 해서 구입했지만 작은 컵라면이 1000원정도로 오히려 한국보다 조금 더 비싼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미얀마 사람들은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현지인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만들어졌거나 가까운 인도네시아 같은 수입품을 주로 이용할 것 같았다. 주로 소비하는 것은 미얀마에서 생산하는 과일이나 야채, 고기 같은 것이고 음료 같은 것도 수입품은 한국과 가격이 비슷하지만 국내품은 200원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다. 야채가격은 좀 더 싼다. 이렇게 물가와 임금의 격차가 큰 나라들은 소비가 이원화 되어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미얀마는 개방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소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폐쇄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다. 미얀마의 부유층 일부만 향유시키기 위해 투자하는 기업은 적을 것이니 말이다. 현지식은 입에 맞지 않았다. 밥은 포슬포슬하고 디저트는 뭔가 너무 달고 짬은 너무 쓰고 장은 너무 짠다. 고수냄새도 어느 반찬이든 조금씩은 풍겼기 때문에 식사는 내내 도전과 실패의 연속이었다. 미얀마는 불교의 나라, 불국토이다. 어딜가든 승려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사원도 정말 많다. 그런 의미에서 시리암 유적지로 이동한 후 처음 본 엘레피아 사원은 미얀마 불교에 대한 환영 같았다. 특이하게 엘레피아 사원은 배를 타고 사원으로 이동한다. 신발과 양말도 모두 벗어야 한다. 우리나라 절은 내가 가고 싶을 때, 원하는 신발을 신고(보통 산에 있어서 운동화 같은 것을 신고 가긴 하지만)갈수 있는데 미얀마에게 불교는 아주 경건하고 신성신정체성인 것 같았다. 짧은 바지도 출입이 안되어서 긴 치마 같은 것을 빌려 둘렀는데 정말 예뻐다. 미얀마는 황금이 많이 나는 나라이다. 그래서인지 엘레피아 사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원들이 다 금빛으로 찬란하다. 불상도 찬란하고 지붕도 찬란하고 화려하다. 간절히 소원하면 가벼워진다는 돌이 여전히 나에게 무거운 것에 실망하며 돌아가려는 찰라 비가 아주 우악스럽게 내렸다. 짹짹하던 하늘에 갑자기 구멍이 난 것처럼 와다다 비가 쏟아지는 모습에 당황스러웠다. 한국이라면 비가 오기까지 공기가 눅눅해졌다가 하늘에 검은 구름이 좀 끼었다가 한 방울, 두 방울 그러다가 비가 와다다 쏟아지는데 미얀마는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같은게 몰려와서는 우르르 쏟아지고 곧 갠다. 이런 날씨는 일정 내내 반복된다. 사람들이 피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너무 맑아 적어도 1시간은 비가 안오겠지 하면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나는 더운 날씨이고 또 갑자기 비가 온다. 미얀마 우산을 하나 사올 것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우기에는 매일매일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하니 얼마나 튼튼하고 가볍게 우산을 만들까. 중국의 화귀를 응용한 듯한 핫팻이라

는 현지식을 먹고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에 어쩔 수 없이 손이 가고 맛있는 맥주를 알게 되었고 미얀마에서만 마실 수 있다는 아쉬움에 맥주도 한잔하며 낯설은 미얀마에서의 하루가 또 졌다.

둘째날의 첫 공식일정이자 일정의 두번째 공식일정인 코트라 강연은 코트라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관한 설명이었다. 국가와 국가간의 교류가 외교의 영역이라면 자국의 기업과 타국을 연결하는 것은 무역의 영역이었고 그것을 돕는 것이 코트라였다. 생각보다 1인 기업까지 폭 넓게 지원하고 시장조사까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에 잘 활용한다면 기업이 수월하게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2일차의 압권은 쉐다곤 파고다였다. 미얀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난 고민없이 쉐다곤 파고다라고 말할 것이다. 호텔에서 출발할 때부터 비가 와서 점심인 댐섬을 먹는 내내 비가 왔다. 파고다 앞에 도착하기 직전까지도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돌아다녀야 싶었는데 웬걸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는 사이 비가 말끔하게 그치고 조금 있다가는 해가 짹짹 내려 오하려 더울 정도였다. 쉐다곤 파고다도 짧은 바지는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치마를 빌려 두르고 활동했는데 정말 완벽하게 예뻐다. 쉐다곤 파고다는 금빛 사원이다. 온통 금빛으로 물들어 있다. 처음에는 금을 덧씌우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의 권유로 조금씩 씌우게 된 것이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아주 큰 탑을 필두로 하여 크고 작은 불상들이 동그랗게 이어져 있고 사이사이 소원을 비는 성수도 있다. 하늘은 너무 맑고 금빛으로 칠해진 불상들은 반짝거리고 맨발로 걷는 느낌은 왠지 편안하고 자유롭게 둘러보는 내내 '아..여기는 가족들과 꼭 한번 다시 오고 싶다.'생각했다. 쉐다곤 파고다를 미얀마 국민들과 불교인들은 성지로 여겨 아주 성스럽고 소중하게 움직였고 나도 그렇게 평화로운 걸음들에 맞춰 많은 것을 비운다는 기분으로 걷고 성수를 뿌리며 소원을 빌었다.

미얀마의 마지막 날은 공식일정은 없었기 때문에 오전에 승려들이 탁발식을 하는 것을 보러갔다. 불교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승과 상좌부이다.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를 믿기 때문에 귀족층에 의해 번져나갔고 국가의 번영과 대의를 불교의 큰 뜻으로 생각한다. 반면 미얀마는 상좌부 불교이다. 소승 불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상좌부 불교는 개인의 희생과 덕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노력이 있으면 극락왕생,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미얀마는 도를 닦는 승려들이 많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우호적인 편이다. 특이한 것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에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스님은 살생을 하지 않아 육식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절밥에는 풀반찬들만이 올라가지만 이곳의 승려들은 닭고기, 소고기 같은 것들도 직접 죽이지 아니하여 먹는다. 시간에 맞춰 종이 울리고 모여 기다리다가 줄을 맞추어 식사를 하러가는 승려들과 수행자들의 모습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불교국가다운 이색적인 모습이었다. 달리는 미얀마 내에서도 인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여객선을 타고 가는 곳이었다. 미얀마 내에서도 빈민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곳을 사람이 운전하는 인력자전거를 타고 한바퀴 돌아보았다. 자전거를 타는 내내 비가 와서 불편하긴 했지만 달라는 비 오는게 참 잘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뒷자리에 앉아서 나를 태운 분과 이야기를 하기 힘들었다. 등을 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뒤에 오는 운전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곳은 학교이고, 20살까지 의무교육을 받고 그런 얘기를 하던 중에 어떻게 자전거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냐고 물으니 자신의 가정사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듣기에는 너무 슬픈 내용인데 슬픈 표정을 짓기는 뭔가 죄송하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가만히 들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연들이 있다. 보족 아웅산 마켓은 관광객이라면 한번쯤 들를 것 같은 곳이다. 한국의 남대문 시장 같은 느낌이었는데 옥이 많이 나오는 나라답게 옥 장식품 같은 것을 파는 곳이 많았다. 가격도 매우 저렴한 편이어서 기념품으로 몇 개씩 집어 사왔다. 정찰제인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흥정을 해야 했는데 얼마나 가격을 불러야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가게에서 제시하는대로 우물쭈물 거리다가 사고 나왔다. 짧은 영어로 몇 마디하는데 어찌나 두근거리던지 영어공부 좀 열심히 할걸 했다. 미얀마어는 너무 그림같이 동그라미가 많고 비슷하고 발음도 너무 어려워서 보면 까먹고 보면 까먹고 했기 때문에 여행내내 외운 버마어는 '밍글라바(안녕하세요)'밖에 없었다. 옥은 기념품으로 좋았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었던 것은 여행 내내 파고다에 갈 때면 어김없이 빌려야 했던 치마였다. 사진을 어떻게 찍어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색도 너무 곱고 자수도 너무 아름다워서 도무지 안 살 수가 없었다. 처음 엘레피아 사원에서 입었던 맑은 청록색이 예뻐 특히 색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도무지 밖에 입고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잠옷으로 쓰고 있다. 그마저도 왜인지 더운 천이라 답답할 때가 종종 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렇게 화려한 옷들과 옥으로 가득한 마켓 주변에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었다. 쇼핑을 하기 전, 지도교수님과 같은 학과 몇몇이 모여 카페에 갔는데 아메리카노가 한국가격처럼 3500원이라 조금 놀랐다. 웬만한 미얀마사람들이라면 먹기 힘든 가격이어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당연하게도 커피를 즐길 여유가 있는 관광객들밖에 없었다. 즐겁게 얘기를 나누다가 창문 밖을 봤더니 어떤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애잔한 눈빛으로 '1번만'이라고 하는 것 같았다.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그러나 보니 옆에서 1달러만 달라고 하는 거라고 했다. 카페 앞에 경찰이 서있는 걸 보니 구걸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았다. 순간 또다시 사치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나는 4달러짜리 커피를 마시고 저 사람은 1달러를 위해 몇 십분 동안 창문너머에 서 있었다고 생각하니 이상했다. 그렇다고 돈을 줄 수는 없었다. 구걸이 성공적으로 반복되면 그것이 하나의 일상이 되기 때문이다. 부의 격차는 얼마나 큰 것일까. 경제적 격차는 한 사람의 일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 왠지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3.

여행을 시작할 때 했던 4가지 다짐이 있다. 돌이켜보면 몇 가지 못 지킨 것도 있다. 무엇보다 음식, 그래도 모두 먹어보겠다고 다짐했는데 아주 안먹지는 않았지만 먹기 힘든 음식들이 너무 많아 스스로에게 조금 놀랐다. 모든 안가리고 다 잘먹고 타국의 음식에 대해 편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냄새와 식감에 민감한 편이었나 보다. 매일 먹은 한국 컵라면을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글도 불평하지 않고 미얀마의 시설에 만족하고 추억할만한 사진도 여러 장, 사실은 아주 많이 찍었다. 나름대로 미얀마에 대해 정의 내리자면 선한 사람들의 나라인 것 같다. 어떤 나라의 사람이던 안 선할까 싶으면서도 관광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나라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람들이 거짓을 말

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것을 깨끗하게 해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다. 낯선 사람들의 어찌면 무례했을지도 모르는 행동에도 먼저 인사하고 웃어주던 건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사람들의 미소가 너무 예뻐서 허락만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웃는 것을 찍고 싶은 기분이었다.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며 다짐한 것도 몇 가지 있다. 첫째, 나도 사람들에게 선한 미소를 보여야지. 둘째, 꾸밈없이 살아야지. 셋째, 다른 나라 음식 먹는 것을 연습해야겠다. 몸이 편하고 마음도 편한 곳은 아니었다. 몸은 뜬금없이 내리는 비와 비가 오지 않으면 찾아오는 무더위, 장티푸스, 말라리아 같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편안하진 않았고 마음도 불편한 상황이 많았지만 미얀마라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나라에 대해 알게 되고 또 나 자신이 성장했다는 점에서 좋은 체험이었던 것 같다.



Figure 2 첫 현지식



Figure 1 맨발로 가야하는 파고다



Figure 4 맛없었던 두리안 아이스크림



Figure 3 미얀마의 거리



Figure 6 아웅산마켓 기타가게 아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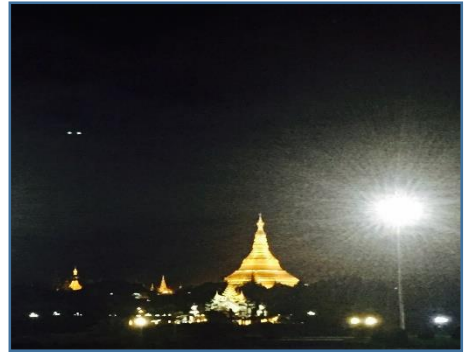


Figure 5 웨다곤 파고다의 야경



Figure 9 웨다곤 파고다 성수



Figure 10 탁발식



Figure 7 엘레피아 사원



Figure 8 시리암의 강물